<h1>나 혼자만 레벨업-63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j4ba1aae94a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63화</p>  
<p>"진우 오빠!"</p>  
<p>한송이가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반가움을 내비쳤다.</p>  
<p>"공대장님!"</p>  
<p>한송이 만큼은 아니지만 남자 헌터 두 사람도 얼굴이 환해졌고, 박희진은 진우의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에겐 팀원들의 환대에 응해 줄 여유가 없었다.</p>  
<p>"쉿."</p>  
<p>진우가 입술에 검지를 붙였다.</p>  
<p>금방이라도 진우에게 안겨들 것 같았던 네 사람이 일제히 얼음으로 변했다.</p>  
<p>박희진이 물었다.</p>  
<p>"왜, 왜요?"</p>  
<p>패 죽여도 시원찮을 자식.</p>  
<p>진우는 기절한 김철을 노려보다 뒤돌아섰다.</p>  
<p>"김철이 혹을 달고 왔어."</p>  
<p>숲속에서 무수한 기척이 느껴졌다. 지금은 김철인지 고철인지를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.</p>  
<p>진짜 문제는 저쪽이니까.</p>  
<p>스르르-</p>  
<p>진우의 시선을 감지한 백귀들이 '은신'을 풀고 모습을 드러냈다.</p>  
<p>대략 20여 마리 정도.</p>  
<p>그중 하나.</p>  
<p>말을 탄 긴 머리의 백귀에게 진우의 시선이 고정되었다.</p>  
<p>'...저놈이 보스다.'</p>  
<p>아이스 베어, 아니 주변의 백귀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기운이 놈에게서 흘러나왔다.</p>  
<p>저런 놈이 던전의 보스가 아니라면 누가 보스가 될 수 있을까?</p>  
<p>오랜만에 살이 떨려 왔다.</p>  
<p>진우가 놈의 강함에 전율하는 동안, 보스도 진우를 한눈에 알아보았다.</p>  
<p>"정말로 있구나. 쓰레기들 중에서도 쓸 만한 녀석이."</p>  
<p>"뭐라고?"</p>  
<p>"...?"</p>  
<p>진우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보스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.</p>  
<p>"너, 우리의 언어를 아는가?"</p>  
<p>진우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.</p>  
<p>'어떻게 대화가 가능한 거지?'</p>  
<p>마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.</p>  
<p>그뿐 아니라 마수의 말도 할 수가 있었다.</p>  
<p>기억에도 없는 언어가 모국어처럼 줄줄 흘러나왔다.</p>  
<p>"당신, 마수들 언어도 할 줄 알아요?"</p>  
<p>박희진은 하도 놀라서 더 이상 어떻게 놀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.</p>  
<p>그걸 보고 진우는 지금 보스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.</p>  
<p>'이것도 시스템의 영향인가?'</p>  
<p>자동번역 같은 거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다시 보스에게로 향했다.</p>  
<p>보스가 흥미롭다는 눈빛을 보냈다.</p>  
<p>"대화가 통한다라... 잘됐군. 너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이가 있다."</p>  
<p>보스는 손바닥으로 뒤쪽의 백귀 한 명을 가리켰다.</p>  
<p>"이미 구면이겠지."</p>  
<p>진우의 눈매가 예리해졌다.</p>  
<p>확실히 낯이 익다.</p>  
<p>'저놈은...'</p>  
<p>처음 레드 게이트 안으로 들어섰을 때 한송이에게 화살을 날리고 조소를 보냈던 놈.</p>  
<p>그 건방진 낯짝을 어떻게 잊을까.</p>  
<p>그놈은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.</p>  
<p>"인간들 중 강한 자가 있다고 알려 준 친구지. 이 친구가 그대와 승부를 내고 싶어 하는데, 그."</p>  
<p>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가 던진 '나이트 킬러'가 일직선으로 쇄도했다.</p>  
<p>퍽!</p>  
<p>웃고 있던 백귀의 얼굴 정중앙에 단검이 박혔다.</p>  
<p>"헉!"</p>  
<p>비명은 헌터들 쪽에서 나왔다.</p>  
<p>윤기중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내지른 입을 황급히 틀어막았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백귀가 그대로 쓰러졌다.</p>  
<p>진우가 손을 뻗자 백귀 머리에 박혀 있던 '나이트 킬러'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곧 뽑혀서 되돌아왔다.</p>  
<p>진우가 '나이트 킬러'를 역수로 쥐고 자세를 낮췄다.</p>  
<p>"다른 할 말은?"</p>  
<p>보스가 감탄을 터트렸다.</p>  
<p>"...정말 강하구나."</p>  
<p>그러고는 말에서 내려섰다. 하지만 아직 싸울 마음은 없는지 무기를 들거나 적의를 보이지는 않았다.</p>  
<p>"그러나 너도 알고 있겠지."</p>  
<p>그러면서 여유 있는 표정을 일관한 채 계속해서 대화를 유도했다.</p>  
<p>"이 수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."</p>  
<p>스물이 넘는 아이스 엘프들.</p>  
<p>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.</p>  
<p>녀석들 틈에 보스가 끼어 있다는 사실이 위험했다.</p>  
<p>나머지 백귀들은 아이스 베어들을 잡으며 최대한 레벨을 올려 둔 진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.</p>  
<p>방금 단검에 맞고 죽은 놈처럼.</p>  
<p>'보스를 어떻게 처리한다?'</p>  
<p>진우가 머리를 굴리는 동안 보스가 말을 이어 갔다.</p>  
<p>"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."</p>  
<p>"제안?"</p>  
<p>"그래. 너에게도 나쁜 조건은 아닐 것이다."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는 내심 놀랐다.</p>  
<p>인간형 마수에게 지능이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, 인간을 상대로 거래를 제시할 정도라고는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.</p>  
<p>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는 보고 싶어졌다.</p>  
<p>"...들어 보고."</p>  
<p>보스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으며 말문을 열었다.</p>  
<p>"그전에 하나만 묻지."</p>  
<p>"...?"</p>  
<p>"너는 왜 인간도 아니면서 인간들 틈에 있는가?"</p>  
<p>진우의 미간이 구겨졌다.</p>  
<p>"무슨 헛소리야?"</p>  
<p>"하하,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건가?"</p>  
<p>보스는 실소를 터트리며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리켰다.</p>  
<p>"우리의 머릿속엔 끊임없이 목소리가 들려온다. 인간을 죽이라고. 그런데 네 앞에서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군."</p>  
<p>아.</p>  
<p>그런 이야기였나?</p>  
<p>그거라면 진우에게 짐작 가는 구석이 하나 있었다.</p>  
<p>'인간이라는 말은 아마 헌터를 뜻하는 거겠지.'</p>  
<p>자신은 지하 신전을 나온 뒤 시스템에 의해 '플레이어'라는 특이 체질로 변했다.</p>  
<p>엄밀히 분류하면 헌터, 즉 각성자들과는 조금 달랐다.</p>  
<p>'그래서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다.'</p>  
<p>그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졌다.</p>  
<p>진우가 납득했다는 얼굴을 하자 보스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. 이쪽도 쓸데없이 피해를 보고 싶지는 않으니."</p>  
<p>보스가 결론을 말했다.</p>  
<p>"네 뒤의 인간들만 넘겨라. 그러면 네 목숨은 보장하지. 어떤가, 우리의 제안이?"</p>  
<p>대답에 앞서 진우가 되물었다.</p>  
<p>"나도 하나 묻자."</p>  
<p>"좋다."</p>  
<p>"너희들은 누구냐?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인간들을 죽이려는 거지?"</p>  
<p>"우리는."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줄곧 미소를 띠던 보스의 얼굴이 한순간 굳어졌다.</p>  
<p>그것도 잠시.</p>  
<p>원래의 표정을 되찾은 놈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. 이쪽도 쓸데없이 피해를 보고 싶지는 않으니."</p>  
<p>'뭐지?'</p>  
<p>진우가 눈살을 찌푸렸다.</p>  
<p>보스는 마치 허락되지 않은 질문을 받은 게임 NPC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.</p>  
<p>"네 뒤의 인간들만 넘겨라. 그러면 네 목숨은 보장하지. 어떤가, 우리의 제안이?"</p>  
<p>여유 있는 얼굴.</p>  
<p>자신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표정이었다.</p>  
<p>뒤의 백귀들도 보스의 이상행동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진우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, 보스가 독촉해 왔다.</p>  
<p>"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?"</p>  
<p>진우는 마수들의 정체와 의도를 알아내려고 했었지만 헛수고로 돌아갔다.</p>  
<p>'그렇다면...'</p>  
<p>남은 건 선택뿐.</p>  
<p>대답은 한참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.</p>  
<p>"거절한다."</p>  
<p>진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.</p>  
<p>'그냥 보내 주기에는 너무 탐스러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거든.'</p>  
<p>놈을 처치하고 그림자를 가진다.</p>  
<p>처음 보스를 본 순간부터 마음먹었던 계획을 이제 와서 철회할 생각은 없었다.</p>  
<p>"나와 내 병사들을 상대로 싸울 작정인가? 이 정도의 수적 열세를 혼자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?"</p>  
<p>진우가 씩 웃었다.</p>  
<p>병사들?</p>  
<p>'너만 있냐? 나도 있다.'</p>  
<p>그림자 소환.</p>  
<p>시전자의 의지에 따라 진우 그림자 안에 갇혀 있던 병사들이 진우의 등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.</p>  
<p>"으, 으악!"</p>  
<p>이번에도 또 비명은 헌터들 쪽에서 나왔다.</p>  
<p>윤기중은 자기 옆에 소환된 아이스 베어의 그림자, 그림자 마수병을 보고 질겁하여 엉덩방아를 찍었다.</p>  
<p>"아, 아..."</p>  
<p>창백하게 변한 멤버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안타깝기도 했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.</p>  
<p>일일이 설명하고 있을 시간 따윈 없었다.</p>  
<p>'뭐, 위기가 아니더라도 설명은 안 했겠지만.'</p>  
<p>29명의 그림자 병사들.</p>  
<p>병사들 앞에 선 진우가 보스를 노려보았다.</p>  
<p>"이제 누가 더 열세지?"</p>  
<p>드디어 보스가 적의를 보였다.</p>  
<p>"...잔재주를 부리는구나. 좋다, 원이라면 죽여 주지."</p>  
<p>보스가 양쪽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도 두 개를 빼 들었다.</p>  
<p>바라던 바였다.</p>  
<p>진우도 오른손엔 '나이트 킬러'를 왼손에는 '카사카의 독니'를 쥐고서 전투를 대비했다.</p>  
<p>'잔재주라.'</p>  
<p>맞는 말이다.</p>  
<p>수적으로는 앞설지 몰라도 보스를 잡기엔 화력이 조금 부족했다.</p>  
<p>진우도 알고 있었다.</p>  
<p>아마도 보스의 자신감은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.</p>  
<p>강력한 원군이 필요했다.</p>  
<p>'강력한 원군이라면...'</p>  
<p>하나 있긴 했다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힐끔 옆쪽을 향했다. 거기엔 쓰러져 있는 김철이 있었다.</p>  
<p>"공격!"</p>  
<p>보스가 외치자 백귀들이 활시위를 당겼다.</p>  
<p>"곰탱이들!"</p>  
<p>진우는 마수병들을 앞에 세웠다.</p>  
<p>푹! 푹! 푹! 푹!</p>  
<p>크아악!</p>  
<p>화살 세례를 받은 마수병들이 울부짖었다.</p>  
<p>백귀들이 다음 화살을 쏘기 전에 병사들이 달리기 시작했다. 마법병도 캐스팅에 들어갔다.</p>  
<p>진우의 눈이 번득였다.</p>  
<p>'내 타겟은 너다!'</p>  
<p>진우는 발뒤꿈치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김철의 장검을 김철 쪽으로 밀어 주고서 튀어 나갔다.</p>  
<p>시선이 고정된 곳은 백귀들의 보스. 보스도 진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.</p>  
<p>두 사람이 가진 네 개의 단검들에서 끊임없이 불꽃이 튀었다.</p>  
<p>캉! 캉! 카강!</p>  
<p>그림자 병사들과 백귀들간의 백병전도 개시했다.</p>  
<p>고명환이 박희진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"저... 우리도 도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?"</p>  
<p>박희진이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이건 우리가 낄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."</p>  
<p>거대한 검은 괴물이 손톱을 휘둘러 대고, 부서진 검은 병사들이 금방 원상태로 돌아오고, 상급 마수 백귀들의 검과 화살이 난무하는 전장.</p>  
<p>'여기서 B, C급인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?'</p>  
<p>허락된 것은 기도뿐.</p>  
<p>박희진은 긴 머리의 백귀와 아슬아슬하게 싸우고 있는 진우를 가슴 졸이며 바라보았다.</p>  
<p>"크윽!"</p>  
<p>진우의 입에서 신음이 나왔다.</p>  
<p>과연 상급 던전의 보스!</p>  
<p>비등해 보이는 싸움이었지만 진우만 몸 곳곳이 찢기고 베이는 중이었다.</p>  
<p>이대로 3분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?</p>  
<p>병사들의 재생이 계속되면서 마나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다.</p>  
<p>이윽고 마법병의 주문이 완성됐다.</p>  
<p>백귀들의 한복판에 배구공보다 훨씬 큰 불덩어리가 떨어졌다.</p>  
<p>쿠아앙-!</p>  
<p>레벨업 된 마법병의 힘이었다.</p>  
<p>고막을 뒤흔드는 강렬한 폭음에 김철의 정신이 돌아왔다.</p>  
<p>"으음..."</p>  
<p>김철이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캉! 캉! 퍼엉-!</p>  
<p>흐릿한 시야에 무시무시한 백귀들의 모습과, 백귀들에 맞서 싸우는 검은 병사들이 보였다.</p>  
<p>'뭐지... 이건?'</p>  
<p>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왜 여기 누워 있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.</p>  
<p>뒤통수를 내려쳤던 손!</p>  
<p>뒤에서 들리던 목소리!</p>  
<p>'그 목소리는 성진우였다!'</p>  
<p>정신을 차리고 나니 수치심과 증오심에 손끝이 부들부들 떨려 왔다.</p>  
<p>마침 손끝에 장검의 손잡이가 잡혔다.</p>  
<p>어차피 백귀들에게 포위당했다면 살아나갈 방법은 없었다.</p>  
<p>그렇다면 적어도.</p>  
<p>'성진우 그 새끼 숨통은 내가 끊어 놓고 만다.'</p>  
<p>비열한 눈빛에 진우의 뒷모습이 비쳐졌다.</p>  
<p>...찾았다!</p>  
<p>놈은 백귀 하나와 싸우느라 뒤쪽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.</p>  
<p>이건 기회였다.</p>  
<p>김철이 벌떡 일어섰다.</p>  
<p>그리고 달려 나갔다.</p>  
<p>"으아아아-!"</p>  
<p>다가오는 김철의 기척에 진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.</p>  
<p>'그래, 너라면.'</p>  
<p>진우는 김철을 믿었다.</p>  
<p>전력을 다해 달리던 김철이 진우의 목을 노리고서 있는 힘껏 장검을 휘둘렀다.</p>  
<p>"뒈져라!"</p>  
<p>앞에는 보스가, 뒤에는 김철이.</p>  
<p>꼼짝하지 못할 상황에서 진우가 외쳤다.</p>  
<p>"이그리트!"</p>  
<p>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림자에서 튀어나온 이그리트가 김철의 검을 쳐 냈다.</p>  
<p>채앵!</p>  
<p>"아니!"</p>  
<p>김철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핏발 선 눈!</p>  
<p>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채 하기도 전에 이그리트의 검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.</p>  
<p>푸욱!</p>  
<p>검은 가슴으로 들어가 등을 뚫고 나왔다.</p>  
<p>"커억!"</p>  
<p>진우는 급히 뒤로 빠졌다.</p>  
<p>'김철이라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믿었다.'</p>  
<p>자기감정에 따라 앞뒤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. 짧은 시간이었지만 김철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했었다.</p>  
<p>진우를 노려보는 김철.</p>  
<p>"너... 너..."</p>  
<p>김철은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다.</p>  
<p>이그리트가 보스를 막아서는 사이 물러선 진우가 쓰러진 김철의 그림자에게 명령했다.</p>  
<p>"일어나라!"</p>  
<p>그러자.</p>  
<p>으아아아아-</p>  
<p>묵직한 비명 소리와 함께 그림자에서 커다란 손이 튀어나왔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